



다름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동성애 바로 알기

펴낸 곳 _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

051.752.1996 www.womcenter.org

2004국가인권위원회 시민실천 프로그램

디자인 _ VoiLa 0515125571

일러스트 _ 강선제 www.voilamania.com

윤혜성 www.yun-c.com

본 사업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권정보자료실
Me1.9

인권정보자료실
Me1.9

다름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동성애 바로 알기

인권정보자료실
Me1.9

CONTENTS

성소수자 용어 바로알기	3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 best 5	6
이럴땐 이렇게 1 성정체성 고민	9
이럴땐 이렇게 2 친구의 커밍아웃에 대한 대처	10
이럴땐 이렇게 3 자녀의 커밍아웃에 대한 대처	11
이럴땐 이렇게 4 동성애자에 대한 협박, 명예훼손 등에 대한 대처법	12
성소수자 관련 책, 영화 소개	13

관련사이트

- 부산여성성적소수자인권센터 www.womcenter.org
-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www.kirikiri.org
- 한국동성애자연합 www.lgbt.or.kr
- 레즈비언인권연구소 lesbian.or.kr
-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단체 친구사이 www.chingusai.net
- 동성애자인권연대 outpridekorea.com
- 레즈비언 포탈사이트 www.tgnet.co.kr

2 다름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성소수자 용어 바로 알기

동성애

동성애는 같은 성을 사랑하는 성적 정체성을 말한다. 즉 남성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남성을 사랑하거나, 여성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여성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동성연애'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했는데, '동성연애'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이고도 자인스러운 애정관계가 아닌, 단지 동성간의 육체적 결합만을 지칭하는 이감을 가지기에 부정적인 용어이다. 동성연애나 동성연애자는 동성애의 성 정체성을 부정하는 언어로 동성애자를 폄하하는 용어이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레즈비언, 게이

게이(gay)란 용어는 동성애자들이 어두운 동성애자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 밝은 이미지의 '기쁨'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원래는 남녀 동성애자 모두를 지칭했으나, 지금은 주로 남성 동성애자를 가리킨다.

레즈비언(lesbian)은 여성 동성애자를 지칭한다. 자신이 여성이면서 여성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노래하고 시로 남긴 고대 그리스 시인 사포가 살았던 섬 이름 '레스보스'에서 유래하였다.

성소수자 용어 바로 알기 3

☪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trans-gender)는 자신의 생물학적 성과 다른 정체성을 지닌 이들을 총칭한다. 이것은 신체의 성전환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다른 성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므로, 외모나 복장으로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

바이섹슈얼은 이성과 동성 모두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퀴어

퀴어(queer)는 원래 '이상한, 비정상적인'이란 의미에서 출발했으나, 지금은 역으로 성적 소수자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드러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 이반

이반(異般)은 일반과 대칭되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처음에는 자기비하적 뉘앙스를 가졌으나, 점차 적극적으로 긍정적 의미로 확대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를 가리키는 은어로써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 무지개 상징

무지개는 동성애자와 동성애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식으로, 동성애자 사회의 다양성을 표현하고 있다. 처음에는 문홍색이 들어간 8가지였으며, 지금은 남색이 빠진 6가지로 사용되고 있다. 각각의 색깔은 섹슈얼리티(분홍), 삶, 자유, 태양, 자연, 예술, 조화, 그리고 영혼을 상징한다.

☪ 커밍아웃, 아웃팅

커밍아웃(coming out)은 coming out of the closet에서 유래한 말로 동성애자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고 외부에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

아웃팅(outing)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자신이 동성애자임이 밝혀지는 일을 말한다.

당신은 어떻게(왜) 동성애자가 되었나요?

이성애자가 '되는' 것이 아니듯 동성애자도 그러합니다. 성장하면서 대부분 이성에게 이끌리는지 동성에게 이끌리는지 아니면 둘 다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러한 정서적인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언제나 있어왔습니다. 다만 사회의 편견 때문에 자신의 동성에 대한 감정을 억누르면서 이성애자 인척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동성애자는 이끌림의 대상을 제외하고는 이성애자와 다른 점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1973년 동성애를 '정신 진단 분류 편람(DSM)' 으로부터 제외하고 정신 질환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아무도 억지로 조장하여 이성애자나 동성애자로 성장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사회의 동성애자들은 경멸당하는 소수 집단에 속합니다. 어느 누가 동성애자가 '되어서' 그러한 삶을 감수하겠습니까?

동성애자들은 에이즈에 걸리는 것 아닌가요?

에이즈는 이성애와 동성애를 구분하지 않는 인간의 질병입니다. 에이즈는 HIV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 특정한 성적지향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이즈는 안전하지 않은 성행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전염됩니다. 세계 통계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자의 대부분은 오히려 이성애자입니다.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감염 사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던 사실이 한국으로 유입된 편견일 뿐입니다.

동성애자들은 누가 남자(여자)역할 하나요?

이성애자들의 시각으로 볼 때 자신들의 전통적인 성역할이 있으므로 동성애자들도 그러할 것이라는 추측에서 비롯된 편견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전통적인 부부 역할과는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많습니다. 둘 중 어느 한 사람이 의사 결정에 주도권을 갖는 것과 집안일이나 성생활의 관계는 각자의 취향에 따르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동성애는 유해하지 않나요?

청소년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정보를 주면 마치 어떤 유혹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빠져들어 동성애자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편견에 지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가 유혹이나 이성애의 정보를 접한다고 해서 이성애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이성애자 역시 유혹으로 인해서 동성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동성애에 대해 정서적인 이끌림을 가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기가 이른 아동기 이든 사춘기 전후이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끌림을 느끼게 되는 것과 같은 시기에 동성애에 대해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는 이성애에 대한 감정들만 지지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이성애와 다른 동성애에 대한 감정은 숨긴 채 지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신의 성적체성을 받아들이고 인식하는데 있어 개인적인 차이는 있으나 자신이 친구들과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알 권리를 잃은 청소년들은 사회로부터 지지 받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며 고민된 청소년들은 가출을 하거나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애석하게 죽음을 선택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어른들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어른들 스스로도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어른들은 청소년들의 성적체성에 대한 고민들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도록 살피줘야 할 것입니다.

성서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하던데요?

어떤 이들은 성서를 근거로 들어 동성애가 '부자연스러운 것'이며 창조의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서도 인간의 의해 씌어진 것이며, 성서는 종교인들만이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각 종파마다 다르게 해석되며 같은 종파 내에서도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편견으로 어떻게 굴곡되든지 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구제하고, 소중히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아껴주는 사랑에는 (동성끼리를 포함하여) 서로를 더욱 충족스럽고 나은 삶으로 채울 수 있다면 부자연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성적체성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며, 자신의 성적 지향이 여성이건 남성이건 어디로 향하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것 역시 사랑할 수 있다는 선물일 것입니다.

동성친구에게 자주 끌리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제가 동성애자인가요?

동성애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발견했을 때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성애중심적 교육을 받아왔기에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에 성적체성에 대해서 그만큼 왜곡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성적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자신의 감정도 차근차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동성애자냐, 이성애자냐 하는 성적체성의 문제는 쉽게 결론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대신 규정지어 줄 수도 없구요. 시간을 가지고 본인이 누구에게 지속적으로 끌리는 감정을 느끼는지, 그 대상이 동성인지 이성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고민해 나간다면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성적체성에 대한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성적체성에 관한 영화나 책을 보면서 올바른 정보를 접하면 고민에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동성애자라는 생각이 들면 관련 상담기관이나 단체, 커뮤니티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조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 머리 잘랐네?
그게 더 잘 어울린다



친구가 나 동성애자야 라고 커밍아웃 할 때

친구의 동성에 정체성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던 경우라면 많이 놀라게 될 겁니다. 우리는 무의식중에 상대방이 이성애자일 거라고 전제하니까요. 그런데 친구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기까지는 많은 내적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을 것이구요. 일단은 친구가 어렵게 털어놓은 고민만큼 친구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고 많이 놀랐다면 놀란 감정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친구의 성정체성이 무엇이든 둘 사이의 우정이 변함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세요. 그런 이후에 친구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도 하면서 서로가 편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친구가 본인에게 커밍아웃했다고 해서 그 사실을 다른 친구들에게까지 알려도 좋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알고 있을 때 친구가 당황하게 되고 예측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10 다름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자녀가 동성애자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계기에 의해서든 자녀가 동성애자인 것을 알게 되었다면 충격적이고 분노에 휩싸일 것입니다. 왜 하필 내 자식일까, 대체 무엇을 못해줬길래 동성애자가 되었나 등등 자녀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그 사실을 숨겨와야 했던 자녀도 큰 고통이 있었음을 생각하셔서, 서로가 상처받지 않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많은 연구에 의해 성정체성 문제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생애 초기에, 즉 어린 시절부터 정해져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동성애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성애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힘든 일인데, 자녀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 길을 선택했을 리 없습니다. 자녀는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부모님이 이해하고 받아주시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또, 부모님들께서 보통 자녀의 동성에 정체성을 극구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녀가 동성애자로 살면 불행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인데, 동성애자로 사는 사람 중에도 자신의 직업이나 생활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모님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큰 원망과 분노로 감정을 다스리기조차 힘들시겠지만, 시간을 가지고 성정체성에 대한 정보도 접해 보시고, 대화를 통해서 자녀의 생각을 들어보세요. 가족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등돌릴 때도 지켜줘야 하는 사람들이고, 자녀가 동성애자라면 더더욱 부모님의 이해와 도움이 간절할 것입니다.



동성애자대상 범죄의 대상이 되었을 때... (아웃팅, 협박 등)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보통 동성애자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이를 약점으로 삼아 갈취, 협박 등을 하는 경우나 폭행, 성폭력 등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법상 갈취, 협박죄, 폭행죄, 강간죄, 추행죄 등이 성립하므로 신고하여 해결하는 것이 2차, 3차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고소한다고 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본인의 성적체성을 문제삼지는 않고, 이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지도 않습니다. 혼자 고소하는 것이 두렵다면 관련 상담소나 단체에 도움을 청해서 연계해 주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면 됩니다.

또한 방송, 출판물 등에 의해 자신의 동성애 정체성이 의사와 상관없이 알려져서 피해를 입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법적으로 대처하여 피해를 줄이고 2차적 피해를 막으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피해를 혼자서 감당하지 말고 관련 단체에 도움을 청하여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12 다름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동성애 관련 책, 영화

동성애의 심리학 윤가현 저, 학지사

성 심리를 연구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각 문화권과 학문영역에서 동성연애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동성애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리학과 문화연구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 또한 동성애자들의 인권회복운동과 남녀 동성애자들의 생활양식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이해를 돕는다.



성서가 말하는 동성애 신이 허락하고 인간이 금지한 사랑 다니엘A. 헬미니악 저, 해울
과연 성서는 정말 동성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신학 연구에 근거한 지성적인 접근보다 신앙의 힘과 계몽주의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현재 한국의 기독교계에 이 책은 역사비평적 해석으로 치밀하게 탐구한 보기드문 신학 연구 입문서가 될 것이다.

커밍아웃 에릭 마커스 저, 박영출판사

이 책은 동성애자에게 누구나 물게 되는 300가지 질문과 대답을 엮은 책이다. 아직 공포 속에 숨어살고 있는 동성애자뿐 아니라, 동성애자 자녀와 친구를 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책이다. 그리고 나아가 자기와 조금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근거 없는 적개심을 드러내는지를 성찰하게 해줄 책이다.



성적소수자의 인권 한인섭의 저, 사람생각
동성애자 결혼문제, 트랜스젠더의 호적정정 문제 등 성소수자를 둘러싼 법률 문제를 풍부 한 해외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다양한 쟁점과 이론을 보여준다.

더월 2 (If These Walls Could Talk 2)
미국/2000/마사 콜리지 등 감독

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로, 레즈비언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그리고 2000년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를 살아온 레즈비언의 다양한 현실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커밍아웃한 레즈비언 배우 엘렌 드제너러스와 유명배우 샤론 스톤이 커플로 등장하기도 한다.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미국/1993/조나단 드미 감독

톰 행크스가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게 한 작품. 한 게이 변호사가 자신의 성정체성과 에이즈로 인해 부당해고당하면서 소송을 하게 된 과정을 담고 있다.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의 편견이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보여준다.

후라이드 그린 토마토 (Fried Green Tomatoes) 미국/1991/존 애브넛

여성 작가 패니 플래그의 원작을 영화화한 여성 드라마로, 수수한 스토리텔링으로 뛰어난 작품성을 발휘하면서 재미와 감동, 유머가 한데 어우러져 훈훈한 인간미를 느끼게 해주는 작품이다. 잊지와 루스의 우정이 원작에서는 레즈비언으로 뚜렷이 묘사되나 영화에서는 다소 무시되었다. 두 여성이 긴 세월을 걸쳐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이 훈훈하게 다가온다.

엄마는 여자를 좋아해 (A mi madre le gustan las mujeres)

스페인/2002/다니엘라 페허만 감독

어머니가 레즈비언인 것을 알게 된 세 딸이 어머니의 사랑을 막기 위해 좌충우돌 분투하는 코미디. 세 딸이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재미있고 유쾌하게 그려진다.

소년은 울지 않는다 (Boys Don't Cry)
미국/1999/김벌리 피어스 감독

실존인물인 티나 브랜든에 대한 이야기.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을 남성으로 여기고 남장을 하고 다니면서 여성을 사귀기도 하지만 끝내 남성들에 의해 강간당하고 살해당한 티나 브랜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다루고 있다.

보이즈 온더 사이드 (Boys on the Side)
미국/1995/허버트 로스 감독

소외계층의 여성들을 중심으로 여자들끼리만 느낄 수 있는 섬세하고도 진한 우정 얘기를 잔잔한 전개와 코믹 터치로 담아낸 작품. 우연히 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된 세 주인공들이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서로의 우정과 사랑을 확인해 간다는 바다-로드 무비. 극중 우피 골드버그가 레즈비언으로 등장한다.

해피투게더 (Happy Together)
홍콩/1997/왕기위

장국영과 양조위 주연, 양기위 감독의 영화. 국내에 수입될 당시 검열 문제가 문제시되기도 하였다. 한 게이 커플이 이별과 재회를 반복하는 이야기.

로드무비
한국/2002/김인식

세 남녀의 엇갈린 삼각관계를 로드 무비의 형식으로 풀어낸 영화.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관습의 벽을 진지하고 앓음하게 다룬다. 사랑은 누구에게나 같은 것이니, 동성애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평가절하되고 거부당하는 현실이 거친 흑백톤과 흔들리는 조명에 의해 표현되었다. 정찬은 영화 속 환각연기를 위해 대마초를 접했고 구속되는 불운을 겪었다.

